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12 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사목회장 : 이광하 하상 바오로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주일, 13:30, 교육관(오라나 센터)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6월) 혼인의 아름다움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의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항상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연중 제12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는 이 미사는,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믿음과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불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릅시다.

제1독서 욥기의 말씀입니다. 38,1.8-11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화답송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1 참조)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5,14-17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35-41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영성체송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영성체 후 묵상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밤이 되었기 때문에, 풍랑이 일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거칠게 풍랑이 이는 밤이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을 제대로 안다면 결코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묵상

믿음은 참 평화의 깃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폭풍을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응답을 다짐합니다.

한 독서회에서 고통의 드라마인 구약의 욥기를 읽고 맛봅니다. 의인인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신비를 알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제 1 독서). 모태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창조한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지혜와 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바다가 삶의 무대인 사람들은 바다에 부는 광풍과 거친 파도를 자주 체험합니다. 그들이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원하는 항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자애와 기적에 감사를 드립니다(시편 107, 응답송)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메아리칩니다(제 2 독서) 낮은 인간성을 지니고 살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새 사람입니다. 주님 주신 생명의 약동은 우리에게 '질그릇 속에 보물'입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도 찾으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일꾼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마르 435-41)은 공관복음이 모두 전합니다. 풍랑을 가라앉히는 기적은 사실과 상징의 양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작은 배를 함께 탄 교회공동체의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 심연에 거센 돌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물을 퍼내느라 소란을 피우는 카오스(chaos, 혼돈)인데도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느긋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38 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통을 방관하실까요? 공생활에 지쳐 쉬시는 주님은 그들이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침묵 속의 주님은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의 저자도 침묵 속에 주무시는 주님을 도와달라고 깨웁니다(시편 44:24)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과 호수를 다스리신 후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40 절)" 죽음을 두려워하면 충실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지중해 문화 시각에서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다른 배들도 주님을 뒤따라오기에(36 절) 겁내는 모습이 알려지면 수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폭풍을 잠재우신 주님께 대한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41 절)"

그 해답은 천지 창조의 개막 장면(창세 12)에서 얻습니다. 한 처음 땅은 아직 풀을 갖추지 못하고 어두운 심연의 카오스입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이를 쓸어버립니다. 바람과 호수를 다스려 평화를 주신 주님은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에 일고 있는 갈등과 번민, 목마름과 시련, 재난과 죽음 같은 풍랑이나 돌풍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요? 오랜 기간 잡초 같은 근심과 허접쓰레기들이 쌓여있지는 않는지요? 내면의 폭풍을 가라앉히는 주님께 맡기고 진실한 믿음과 사랑의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대한 태도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최대의 쾌락을 최소의 고통'으로 즐기려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르침대로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침묵 속의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어둠의 빛'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낮익은 체험입니다. 이 기도는 영혼의 심연에서 이는 폭풍을 다스려 주시는 침묵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세상의 풍랑이 우릴 괴롭혀도 흔들림 없는 믿음은 고통을 인내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한 '평화의 깃발'입니다.

자애로우신 주님, 삶의 폭풍이 저희를 뒤덮을 때, 믿음을 깨우쳐주소서. 저희가 기도와 성사로 일치를 이루고 사랑의 삶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출처 : Goodnews 가톨릭뉴스, 김창선(요한 세례자) 가톨릭영성독서지도사]

교황 주일(6 월 27 일) 2 차 헌금 안내

다음 주일(6 월 27 일)은 교황 주일입니다. 교황 주일에는 매년 교황님의 사목활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2 차 헌금(Peter's Pence)을 모아 교구를 통해 송금해왔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올해 코로나 백신 나눔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교황 주일 2 차 헌금은 백신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참여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와 닿는 성경구절 나누기

우리 공동체 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6 월 13 일)에서 공동체 설정 10 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던 '내 마음에 와 닿는 성경 한 구절과 그 이유' 모집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용양식은 성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된 양식은 교무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는 매주 주보에 공지되고 최종 집계는 소공동체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 : 7 월 11 일(주일)]

교무금 납부 확인서 배포 및 공동체 재정보고(문의 : 이지영 아녜스)

[교무금 확인서] 2020 년 7 월 1 일~2021 년 6 월 30 일까지 납부하신 교무금 확인서를 7 월 4 일(주일)부터 배포
[2020-21 회계연도 공동체 재정보고] 7 월 18 일 미사 후 공지사항 시간

어린이 전례 (문의 : 안윤경 소화데레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 일 기도(6 월 17 일(목)~25 일(금))

미사 전이나 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봉헌해 주십시오. (가톨릭 기도서[개정판] 109 면 / 매일미사 191 면)

- 지향
- 6 월 20 일(일): 경제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6 월 21 일(월): 남과 북의 복음화를 위하여
- 6 월 22 일(화):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 6 월 23 일(수): 한반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 6 월 24 일(목):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 6 월 25 일(금): 한반도에서 종전이 선언되고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 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1) 밤 9 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2)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설정 10 주년 기념 기도 및 감사 영적 예물

[성경 필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우분들은 소공동체장에게 성경필사 노트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차 100 일 기도 및 영적 예물표, 5 월 31 일(월)~9 월 7 일(화)] 성당 입구 비치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성 요셉의 해'(2020.12.08~2021.12.08) 특별 대사 안내

'매월 19 일'과 라틴 전례에서 성인을 기리는 '매주 수요일'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대기 도서 판매(16 볼, 문의 : 각 소공동체장 또는 이민정 글라라)

♡ 조성태(디모테오) 김지현의 딸 조수지(가브리엘라)의 유아세례를 축하하며 공동체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최병건 세례자 요한(24 일)의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교황님과 함께 하는 '백신 나눔 운동'

◆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

1. 공동체 교무금 계좌로 납부 시 'Vaccine' 기재 / 교무금 봉투에 '백신' 기재 후 교무금함에 납부
2. [참여기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 주년 희년 종료(올해 11 월 27 일)까지

봉사자 모집 (문의)

- 청소년 복사 (김수현 수산나) / 미사 해설 (김우경 가브리엘라)
- 후보, 웹사이트, 사회복지분과 (허준 안토니오) / 예비신자 교리반 (민선화 테오도라)

소공동체 구성 및 활동 소개 (문의 : 소공동체장, 이민정 글라라)

소공동체	요한회	루카회	마르코회	마태오회
주요 구성원	50대	40대	30대	미혼, 커플, 청년
주요 활동	매월 세번째 주일 미사 후 말씀나눔	매월 두번째 주일 미사 후 말씀나눔	가정별로 돌아가며 말씀나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말씀나눔/친목활동
조장	서은주 데레사	주정자 루치아	방진선 요안나	최재원 스테파노

추천 가톨릭 콘텐츠

-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의 시간을 걷다] (4) 최양업 유학하다
'거룩한 사제' 기대주로 인정받아, 조선 순교자 행적 라틴어 번역 82명 가경자 선포에 기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55254¶ms=page%3D1%26acid%3D896
- [기후는 공공재입니다] (7) 기후 활동가 킹스턴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공동체 합심해 생태 회복하고 피조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모든 신앙인 적극 참여하길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57890¶ms=page%3D1%26acid%3D909

주일 미사 참례자수

6 월 6 일	성인 42 아이 12	6 월 13 일	성인 50 아이 25
---------	-------------	----------	-------------

우리들의 정성 (6 월 12 일(토)~18 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태린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주진호	한상지		
교무금 : \$695(14가정)				주일 봉헌금 : \$300			
백신 나눔 운동 모금 : 구민식(\$60) / (총액 : \$1,11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봉사자 안내

- 독서 : (6 월 20 일, 연중 제 12 주일) 주정자 루치아, 공성은 루실라
(6 월 27 일, 연중 제 13 주일, 교황 주일)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 체온측정·방명록·미사 후 성당 뒷정리 : (20 일) 마태오회, (27 일) 마르코회
- 미사 후 간식나눔(격주) : (20 일) 마르코회

교구 코로나 19 방역지침 안내(QR 코드 사용 의무화 / 2 제곱미터 거리두기 지속 적용)